

고흥서 명절 장 보고 20% 돌려받으세요



상품권

商品券

군, 지역상품권 지류 15%, 카드·모바일 20% 캐시백 적립
이달까지 특별할인…군민 부담 완화, 골목상권 소비 촉진

고흥군이 설 명절을 맞아 군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고흥사랑상품권 이용을 적극 당부했다.

군은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새해맞이 고흥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다.

지류형 상품권은 1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카드·모바일형 고흥사랑상품권 결제 시 20%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 적립 혜택은 상품권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되는 역대 최대 규모로, 명절을 준비하는 군민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번 할인행사를 통해 명절 소비가 대형

유통업체나 지역 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전통 시장과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카드·모바일형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chak)' 앱을 통해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결제 즉시 20%가 캐시백으로 쌓여 군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이 매우 크다. 지류형 상품권은 관내 45개 금융기관에서 월 50만 원 한도로 구매할 수 있다.

고흥사랑상품권은 식당·편의점·마트·병원 등 관내 가맹점 2490여 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

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설 명절을 맞아 고흥사랑 상품권을 이용하면 장보기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에도 힘을 보탤 수 있다"며 "고흥사랑상품권을 활용해 군민과 귀성객 모두가 알뜰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소상공인 힙망플러스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iju@kwangju.co.kr

경치 좋고 맛 좋고… 광양에 가야 하는 7가지 이유

광양시, 설 연휴 관광지 소개
소학정 매화·배알도 섬 정원 등
봄이 오는 길목 '힐링' 선사

광양시가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느긋하고 기억에 남는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광양에 와야 하는 7가지 이유'를 소개했다.

백운산과 섬진강이 품은 고요한 풍경 속에서, 이른 봄을 알리는 매화의 생동감과 문학·예술의 격조, 지역 고유의 미식이 어우러져 설 명절 여행의 품격을 더한다는 설명이다.

◇봄마중 떠나는 설 명절, 소학정 매화

광양 설 여행의 시작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소학정 매화다. 매서운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꽃망울을 뜨뜨린 매화는 오랜만에 만난 가족에게 설렘과 함께 봄의 기운을 전한다.

◇기억을 걷는, 망덕포구와 배알도 섬 정원

망덕포구는 윤동주 시인의 친필 유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보존한 정병욱 가옥이 자리한 곳으로, 문학적 기억이 살아 있는 공간이다. 특히 2월 16일은 윤동주 시인 순국 81주기로, 그의 삶과 시를 되새기며 방문하기에 의미가 깊다.

인근 배알도 섬 정원은 바다와 섬이 어우러진 산책 명소로, 겨울 끝자락의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걷기 좋은 곳이다.

◇고요한 사색의 시간, 옥룡사 동백나무숲

천년 고찰의 흔적을 품은 옥룡사 동백나무숲은 명절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사색하기 좋은 공간이다. 3월 개화에 앞서 '꽃이 피기 전의 숲'이 주는 깊은 녹음과 적묘가 오히려 신비로운 매력을 더한다.

◇도심 속 비일상, 이순신대교



배알도 섬 정원 야경.

이순신대교 드라이브는 광양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대교 양쪽으로 펼쳐진 광양제철소와 광양항은 낮에는 웅장한 스케일을, 밤에는 찬란한 장관을 선사하며 광양의 역동적 미래를 강렬히 각인시킨다.

◇문화로 호흡하는 하루, 미술관&갤러리

전남도립미술관은 기증품 전시부터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동시에 미술까지 폭넓은 기획전을 통해 격조 있는 시간을 제안한다. 인서리공원 반창고 갤러리는 기획전 '겹과 겹'을 통해 조형 언어의 충돌과 질감을 담담하게 보여준다.

◇문화로 호흡하는 하루, 미술관&갤러리

전남도립미술관은 기증품 전시부터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동시에 미술까지 폭넓은 기획전을 통해 격조 있는 시간을 제안한다. 인서리공원 반창고 갤러리는 기획전 '겹과 겹'을 통해 조형 언어의 충돌과 질감을 담담하게 보여준다.

◇명절 피로 녹이는 이색 힐링, 광양와인동굴

페滴滴도를 재생한 광양와인동굴에서는 와인의 역사, 미디어아트, 트릭아트 등 다채로운 체험이 가능하며, 세계 각국의 와인도 맛볼 수 있다. 특히

와인족들은 설 연휴에 쌓인 피로를 풀며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기 좋은 프로그램으로 꽉힌다.

◇이른 봄의 미식, 광양의 맛

여행의 즐거움을 완성하는 것은 지역의 맛이다. 백운산고로쇠는 이 시기에 맛볼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이며, 제철 벚꽃은 깊고 담백한 바다의 풍미를 전한다. 여기에 숯불 향이 살아 있는 광양불고기와 광양닭숯불구이까지 더해지며 명절 여행의 여운을 오래 남긴다.

한편, 설 연휴 기간 주요 관광시설 운영 일정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은 설 당일 2월 19일 휴관하며, 전남도립미술관은 설 당일과 2월 19일 휴관한다. 인서리공원 반창고 갤러리는 2월 18일 하루 휴관하고, 그 외 기간에는 정상 운영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곡성 청소년들 '글로벌 꿈' 키운다

24일까지 15박 16일 뉴질랜드·싱가포르 캠프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 지역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9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예비 고교생 15명과 함께 15박 16일 동안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에서 곡성군 글로벌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글로벌 캠프는 지난 2025년 8월부터 운영된 국내 글로벌 캠프를 시작으로 5개월간 화상영

어수업, 매월 원어민 교사 참여 교육, 프로젝트 토론 수업 준비 등 사전 교육과정을 거쳐 해외 글로벌 캠프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의미를 더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케이스브록 인터미디어 학교 수업 참여와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역량을 키우고 남극센터, 캔터베리 대학 견학 등을 통해 현지 교육 환경과 과학·환경 중심의 체험 학습을 진행한다. 싱가포르에서는 마리나 베레이(담수시설), 시티갤러리, 리버워더스 등 생태 환경을 주제로 한 체험 학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관계자는 "지역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맞춘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글로벌 시민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



년 전국 최초로 산림청 지리적표시 제16호로 등록한 데 이어, 2026년 친환경 인증까지 획득하는 등 백운산 고로쇠의 가치를 높이고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서상원 광양시약수협회장은 "이번 약수제가 광양 고로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 고로쇠 풍년 기원

공연·시음 행사 등 약수제 성료

광양시가 지난 10일 익룡면 동곡리 백운산 약수제단 일원에서 열린 제43회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

이번 약수제에는 지역 기관·사회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한 해의 풍년과 시민의 안녕, 고로쇠 수액의 풍성한 재취를 기원했다.

행사에서는 전통 제례 의식을 시작으로 공연, 고로쇠 시음 행사 등이 함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정성스럽게 마련된 제례를 통해 백운산의 맑은 기운을 나누고, 광양 고로쇠의 풍년과 지역 학습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은 마그네슘과 칼슘 등 천연 미네랄이 풍부해 관절 건강과 위장 기능 개선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우수성을 바탕으로 광양시는 지난 2008

전통시장서 명절 장보고 지역경제 살리고

보성군, 14일까지 설맞이 행사…공직자 특산물 구매 등

보성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오는 14일 까지 관내 주요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고 행사'를 진행한다.

장보고 행사는 전통시장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동시에 '민생600 보성사랑 지원금'의 사용을 독려해 실질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9일 북내5시장에서는 김철우 보성군수를 비롯해 보성군의회 의원, 관내 기관·단체 관계자, 공직자 등이 참여해 세수와 지역 특산물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특히 이날 일정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설 연휴와 보성사랑 지원금 지급이 맞물리며 소비 진작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분께서 명절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전통시장을 방문해 다양한 먹거리와 물품 구매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착한 소비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 2월 2일부터 군민 1인당 30만 원의 '민생600 보성사랑 지원금' 신청·지급을 시작했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군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통해 일상 회복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낙안읍성에 봄이 왔네~

납월홍매 등 홍매화거리 1000여 그루에 꽃봉오리 맺혀



순천 낙안읍성의 봄을 알리는 납월홍매에 꽃봉오리가 맺혔다. 홍매화는 추위 속에서도 먼저 꽃망울을 터뜨리는 대표적인 봄꽃으로, 붉은빛의 꽃잎과 향기가 낙안읍성의 옛 정취와 어우러져 보는 이에게 즐거움을 준다.

낙안읍성 홍매화거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한 홍매화 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지속적으로 낙안읍성 내외에 홍매화를 식재해 조성하였으며, 납월홍매·능수홍매 등 1000여 그루의 붉은꽃과 은은한 향이 어우러져 산책과 사진 활영 명소로 사랑받는 곳이다.

또한, 낙안읍성 주변에 위치한 금둔사에는 6그

루의 납월매가 있으며 이 매화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일찍 피어나는 매화나무로 알려져 있어 매화 여행의 첫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홍매화의 개화시기는 2월 말에 개화를 시작해 3월 초에 만개하게 된다. 현재 낙안읍성 내의 홍매화는 봄오리가 부풀어 붉은빛을 띠고 있어 설날 전후로 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낙안읍성지구사업소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낙안읍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봄꽃 및 문화유산을 통해 사진을 찍거나 홍매화 향을 즐기는 등 조봉의 낙안읍성을 즐겨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총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시, 설 연휴 하천 등 환경오염 감시

여수시가 설 연휴를 맞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관내 하천과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연휴 기간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공백을 틀탄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 감시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여수시청 누리집을 통한 환경오염 신고·상담 창구를 적극 홍보하고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연휴 기간에는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 상

황실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관내 하천과 환경오염 우심지 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ول러 특별감시 기간 중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과 사후 관리도 절저히 추진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과 귀성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장의 자율점검 참여와 함께 시민들께서는 불법 오염행위나 사고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